

종보는 우리문중의 사적과 역사
그리고 일가분들의 소식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일가분들까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在熙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敏燮, 在萬, 基瑢, 南燮
發行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64 희신빌딩 403
전화 323-6223 이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8-4 鄭仁基

—永川 都先山의 淨化事業을 하면서—



門中일가 여러분, 무덥고 지루
했던 긴 여름도 지나고 菊秋 初寒
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
러분 건강하시고 家內두루 均安하
시온지요.

우리 대종회가 발족한지 10여년
을 지나면서 甲子大同譜의 발간과
羅州사단 및 忠敬書院의 축성을
비롯하여 江華祀壇의 조성 등 어
려운 일들은 모두 전임會長분들의
노고와 각지역에서 수고해 주신
실무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
해 주신 일가분들의 정성의 소산
입니다. 제가 대종회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은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회장직을 맡으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몸으로 어떻게 선
임회장분들의 전통을 이을까 하고
나름대로의 고심이 많았습니다.
대종회의 운영제여건이 재출발을

大宗會長 廉在熙

해야할 만치의 어려운 상황에서
전임2대 東鑄회장님의 배려로 훌
륭한 사무실도 마련되었고 종전까
지 각지역에서 송금되는 분단금만
으로 운영하든 대종회가 분단금
수익이 부진해지자 운영이 어려웠
던차에 종인유지 여러분의 정성의
헌성으로 근 6,000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이제 기금의 이자수익금
으로 대종회 운영 경상비에 충당
하여 각 지역의 분단금없이 자영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으
로부터 67년전인 1927년부터의
문중 숙원사업이였던 永川 宰相
公, 菊坡公, 耕隱公 三位산소의 정
화사업도 1993년에 봉분을 돋우
고 비석과 상석, 망부석, 석등등
을 가꾸는 1차 사업이 근 3,000
만원의 헌성으로 이룩된 자원으로
마무리 되었고, 연이어 금년 10월
15일부로 영천산소 묘역임야 5,
047평을 7,000만원에 매수하는
사업을 확정지움으로서 일가분들
이 보다 새로운 면목과 감회를 갖
고 甲戌年 歲祀를 맞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치의 성과를 견

을수 있었던것도 다 여러분들
의 성의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기만 하는 경제여건과 금년
같이 짜증스럽고 무덥고 긴여름동
안 방문할 때 마다 삫은 마음없이
현성해 주셨고 또 격려해주신 宗
人 여러분 문중을 대신하여 회장
으로서 업드려 감사의 마음 다시
올립니다.

앞으로 재상공산소에 접근하여
몰래 묘를 쓴 박씨家 산소의 이장
문제에 대해 부산화수회에서 절충
중에 있으니 곧 매듭지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소유
의 땅이 되었으니 폐를 다시 보충
하고 나무를 심어 경관을 새롭게
하며 부근거주 일가분을 선정하여
책임지고 돌보게 할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도
움말씀 주십시오. 그동안 永川산
소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소홀함으
로해서 통분하셨을 선조분께서도
오늘의 후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대해 조금은 위안을
느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

화합하고 한핏줄 맑게 힘차게 이
어갈 우리일가 모두가 서로 돋고
격려하여 보다 값진업적 이루하여
후손들에게 전하여 염문의 궁지를
잇게 합시다. 여러 일가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강녕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大宗會소식

'94년도 정기 총회

1994년 3월 19일 11:30에 대종회 사무실에서 '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 93년도 회계를 결산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수입

93년도 이월금	2,623,999
기금이자수익	5,000,000
종보광고수익	500,000
계	8,123,999

'93년대비 -1,891,220

지출

전화요금	400,000
사무비	500,000
출장비	500,000
회의비	1,500,000
향촌대	300,000
종보간행	1,500,000
경조비	500,000
거마비	2,400,000
잡비	400,000
예비비	123,999
계	8,123,999

2. 93. 11. 16일에 완결한 체약산 염정골 산소 정화사업(봉분 돋우고 석물설치)의 회계를 결산

수입

시제전 입금	23,690,000
시제시 성금	3,760,000
계	27,450,000

지출

석물일체	11,300,000
토목공사	1,500,000
사무비	165,200
출장비	610,500
섭외비	200,000
제수비(공사시)	120,000
공사제경비	822,000
시제비용	2,521,700
기타경비	150,600
지출소계	18,814,900
잔여금	8,635,100
투자신탁에 입금	
합계	27,450,000

3. 강화산소의 회계결산과 94년 예산

수입	
93년도 이월금	2,769,252
94년 현성모금	4,150,000
계	6,919,252

대종회 기금관리현황

예금원액	52,500,000
93. 1. 13평가	53,704,301
94. 2. 14평가	60,970,920
94. 2. 14인출	5,000,000
94. 2. 14인출후	55,970,951

한국투자신탁 동대문지점에 예입

※ 94총회 이후 기금을 현금해 주신분

洛元	30만원
仁必	50만원
보령종친회장	200만원
吉榮	

강화산소 時享

94년 4월 11일 11시에 참예자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화창한 날씨 속에 경건히 향사를 마치고 왕벚꽃나무 10년생 10그루를 식수하였다.

임원회

1994년 10월 8일 12:00에 영천 채약산 산소 묘역임야 매수건을 주의제로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1. 경북 영천군 금호읍 약남리산 19번지의 필지중 산 19~1의 임야 16685평방미터 (약 5,047평)를 소유주 방상국으로부터 7,000만원에 매수키로 한건을 심의 추인하였다.

2. 재상공 묘소 가까이 투장된 박씨묘소의 이장문제에 있어 부산화수히에서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장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3. 나주충경서원의 마무리 공사에 관해 거론되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로 하였다.

4. 임야매입을 위해 현성해 주신 분의 명단을 공포하였다.

忠靖公의 삶 (충성과 제민 그리고 신심에 바친 세월)

신하였던 이성계(李成桂)가 섬기던 고려왕조를 배반하고 역성혁명을 한후 그 반역을 변명하며 이 조선국 전말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 아래 이조 초기왕들이 고려사를 편찬함에 있어 고려와 친교한 중국에서의 전조 원을 비판하고 신생明朝에 대하여서는 비굴성과 사대주의적으로 미화하여 기록하였고 특히 고려말기의 충신들을 악평일관으로 격하 시켰다는 사실은 현대의 역사가들은 물론 이조 중기 이후의 학자들의 공통된 지론이다. 정인지 등이 쓴 잘못된 고려사는 고려말기를 왕실의 폐륜과 악정 신하들의 탐욕 등 혼란한 것만으로 기록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고려에 쓰여진 사적자료를 말살해 버렸다.

고려말에 이성계는 충신들을 하나하나 가진 모함으로 살해하고도 모자라 전국후에는 고려의 왕족과 충신은 물론 그 가족 심지어 강보에 쌓여진 유아까지 가진 방법으로 짐단살해 하였고 그 후의 왕들도 살아 남은 충신의 걸출한 후손들을 감언으로 등용하여 이용했다가도 끝내는 트집을 잡아 해를 입힌 기록 등은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잘못된 고려사를 이해없이 원문을 읽고 정사로 신봉하는 예가 있어 위선 고려후기 우리 선조이신 忠靖公의 행적을 재조명 하려한다.

公은 중시조 충경공의 조부 되시는 분으로 초명은 惟直이며 휘는 承益이시다. 政堂文學 孝文公

있으면서도 大藏經을 필사하는데 힘을 썼다. 또 王이 자주 사냥을 다녔는데 公은 불교의 교리로서 무모한 살생을 하지 말 것을 권하니 王도 그후 말을 따라 자숙하였다. 점차 公에 대한 王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이를 시기하여 모함하는 무리가 많았는데 僉議評理를 거쳐 副知密直으로 승진하였을 때 元의 東寧府 관리로 있던 한신, 최단, 현호철 등이 공모하여 公이 千戶 계문비를 시켜 자신들을 살해하려한다고 거짓죄명을 씌워 遼東按察府에 고변하자 원에서 사신이 나오고 고려에서도 중신 김주정, 조인규, 유비 등을 파견하여 철저히 합동 조사 하였던 바 고변한 韓愼 등이 허위였다고 자백함에 사실이 밝혀졌다. 甲戌 10년 (1284) 2월 무자일에 公은 경상, 전라, 충청 등 3도의 都巡問使로 임명되어 지방서정과 민심을 순문하였고 동년 9월에는 知密直司事에 이르고 기해일에는 公의 弟되시는 謹守貞이 少府尹 지제고의 벼슬에 오른다. 이어 丁亥 13년 (1287년) 12월 계미일에 公은 子 謹世忠의 配位인 嘉順宅主 趙氏의 父되시는 사돈 趙仁規와 나란히 知都僉議司事로 승진된다. 다음 해에 洪子藩이 首相이고 趙仁規가 亞相이였고 公이 그 다음의 宰相이였는데 특히 公은 王과 公主의 兩宮에 총애를 받아 禁中에 항시 거주하다시피 하였던바 하루는 洪公이 나간후 趙公이 지나는 말로 이르기를 한간에서 洪公은 진짜재



에 열중하였다. 을미21년(1295년) 봄 무진일에 公은 병으로 관직을 사임하였으나 얼마 안있다가 모친의 상을 당하여 상중에 있었음에도 公主가 병을 얻어 위독하니 상복을 벗고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서 法席을 차려 놓고 부처에게 정성으로 근행을 하였다. 임인 28년(1302년) 3월 경술일에 興法佐理功臣으로 공신 칭호를 받고 都僉議中贊에서 관직일체를 사임하고 곧 숙발하여 중이 되셨다. 같은해 10월에 돌아가시자 나라에서 忠靖公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때 子 謹世忠은 安南副使의 벼슬에 있었다. 이렇듯 公의 역사서에 나타난 흔적만

龜淵祠에서의 벽찬 가슴 (盤龍山기슭의 정성과 슬기)

산 넘고 강 건너 지금도 시골마을 밤금과 감나무들이 다 떠나고 자식 효자된다는 自慰로 우리가 지킨다고 하였다. 산을 내려 오니 어두워져서 바로 떠나려하자 막걸리 한잔이라도 안드시고 가면 우리가 서럽다며 술잔을 골목으로 들고 나와 권하여 한잔씩을 들이키고 손흔들고 떠나면서 가슴이 벅차는 한핏줄일가의 정감이 온몸에 가득찼다. 龜淵祠가 올봄 4월에 마을일가분들 공동명의로 1000만 원을 대부받아 祠宇 두건물의 개와를 다시이고 내부와 담장을 보

諱 信苦의 후손으로서 일찍이 학문이 높았고 특히 국교였던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 젊어서 몸쓸병을 얻어 백양으로도 험험을 얻지 못하였느라 독특한 고행과 정성으로 근행을 하여 병이 폐차하였다. 그 후 이웃에서 심한 병이 들면 정성과 근행으로 병을 낫게 하여 백성들로 부터 신망이 높았고 朗中 벼슬에 있을 때 부터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였는 바 왕이 병을 앓아 天孝寺로 피접을 갈 때 王妃인 齊國大長公主가 수행자가 적다는 이유로 왕과 다툴 때 공이 나서서 말하기를 왕이 부처의 힘을 빌어 병을 고치려 하는데 공주가 노하니 정성이 부족하여 탈이 되면 어찌합니까 하니 공주가 노기를 풀고 화합하니 신하들이 모두 공을 칭찬하였다. 경신 6년인 1280년 2월 무술일에 왕과 공주는 玄化寺에 가서 承旨인 공에게 불전을 지으라 함에 공은 절을 수축하고 또 지금 국립박물관 마당에 있는 국보인 남계원 7층 석탑을 지휘하여 건립하였다(이 석탑에서 감지은자 법화경과 경의 끝에 공의 발원문이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공은 또 벼슬에

상이고 자신은 늙은 통역군이며 공은 늙은 기도꾼이라 한다는데 우리는 민심에 개의치 말고 맡은 일이나 하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14년(1288년) 봄 庚寅日에 관직을 사임하고 만다. 공으로서는 관직으로서 백성 한 사람에게 서라도 비난의 소리가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였으리라. 그러나 다음 해인 기축 15년(1289년) 11월 壬子일에 王과 公主 및 世子가 元나라에 갈 때 서로 수행하겠다고 희망하는 자가 많았던 바 심지어 史官도 떼어놓고 가면서 趙仁規 印侯 安珣와 더불어 공을 수행 시켰다.

신묘 17년(1291년) 9월 己未日에 公은 判版圖事 世子保의 벼슬에 다시 임명되었고 얼마 있다가 다시 判監察司事로 승차되었다.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도 다시 임용되고 하면서도 公은 어려운 백성을 도웁고 청염결백하였음에도 자주 시기하는 무리들은 관직을 탐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한다는 소문과 송사가 있었으나 모두 그 진실이 밝혀져 王의 신임은 시종일관하였다. 그러나 公은 부귀와 영화의 속세사를 외면한 채 맡은 일

으로도 눈을 뜨고 보면 公은 긴 관직생활에서 직위의 높고 낮음에 연연 집념하지 않으셨고 사리사욕에 탐하지 않았고 굳은 신념과 깊은 신앙심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 성품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대함에도 모나지 않고 화려함에도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려던 公의 빛난 업적을 우리 후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碧江)

참배하고 六洞 浮日里 뒷산으로 壬亂 때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신 宣武原從一等功臣으로 兵曹判書 同知義禁府事가 되신 九世 末鄉원 조의 산소를 찾았다. 산소를 치장해야 조상의 공적이 빛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어찌 이리 돌보지 못했는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절하기 민망하다. 봉분이 허물어지고 비석이 삭아 잘 보이질 않는다. 일

수했다. 도유사 22세 柄祚. 총무 24세 太君氏 등 일가 여럿이 애를 썼고 매월 조금씩 돈을 모아 상환한다고 하니 가슴에 와 닿는 가르침이 있다. 떠벌리지 않고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으며 조상은 이렇게 가슴과 손발로 모시는 것이라는 뭉클한 꾸중을 듣는다. 龜淵祠는 매년 봄 음 3월 15일에 청도군 유림 행사로 祭를 드리고 있다. (碧江)

-생활의 선-

덕행의 흔적

義捐金을 내거나 기부금을 낼 때 심지어 교회나 절에 현금 할 때 까지도 유난히 자기과시를 하거나 이름이나 흔적을 남기려는 일들을 자주 본다.

어느 시골학교 운동장 구석에 벤드레한 비석이 있기에 누구의 무슨 비석이냐고 물었더니 학교에 도서를 기증한 분의 비석이라고 했다. 책 한권은 고사하고 자녀가 공부하는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에 비한다면 어린이를 위해

책을 기증한 사람의 성의는 탑이 라도 세워드리고 싶었으리라.

마태복음 6~3에 보면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원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신을 숨겨 두어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이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했고 금강경에 “應無所住 行於布施”라거나 “無住相布施”라고 하여 남에겐 베푸는데 흔적이 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베풀었다는 흔적이 외부에는 물론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 조차 흔적이 남아 있으면 참다운 베품이 될 수 없다고 설파했다. 흔적이 있으

면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희랑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 과시하는 꼴이 되어 그들은 이미 밭을 상을 다 받았다고 하며 가르킨다. 얼마 전 빈대떡을 팔아 외로히 평생을 모은 거금을 이름도 밝히기를 거부하며 모 공익재단에 기부한 노파의 덕행이 보도된 일이 생겨난다. 다시 더 무엇이라고 그 덕행을 누가 이름지을 수 있는가 (母影居士)

—연변에서의 족보

(격난기속의 이국에서 간직한 우리 족보)

(첫째소식)

(둘째소식)

금년봄 4월의 어느날 아침 상냥한 짧은 여자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심한 이복함경도 시투리로 나는 중국연길시에서 온 파주염씨의 이름이 선회 라며 백부 되시는 의석 씨를 찾을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통화가 계속 되면서 20대 초반의 처녀가 혼자 중국에서 오면서 조부때 함경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며 한말과 일정, 그리고 해방의 격동기 속에서도 선조때 부터 소중히 간직해 오던 족보 3권을 아버지가 못가져간다며 말렸는데도 가지고 와서 그 족보에 의한 백부 의석을 비롯한 친척의 소식을 찾을수 있느냐고 했다. 짧은 여자의 생각의 깊고 착하게 느껴져 상면했더니 용모도 단정하고 행동거지 또한 방정하였다. 더욱 이 사연을 듣고보니 한국을 찾은 목적 또한 감격할 만큼 가특하다. 연길에서 우리내 국민학교의 교사로 있다면서 여건을 개척해서라도 공부를 더 하고싶다는 의욕이 대단했다. 그가 품에 안고온 족보를 보고 오랜 기간 깊이 보존된것을 보고는 엄격한 가풍을 연상했다.

그 족보를 빌려와 검토한바 1984년 甲子譜 8권을 편찬할때 전국각지에서 수집하여 참고로 했던 족보의 목록에는 없는 또 다른 족보였다.

天, 地, 人의 3권으로된 말미에 崇禎紀元后 五庚寅 九月下濱 龍川 신간이라고 했으니 서기 1890년 음력 9월 하순, 함경남도 단천 서북방에 있는 용천에서 발행된게 분명하여 우리문중의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우리가 84년 족보를 편집할때 청강공계열의 일가가 거의 이복에 있어 자료가 적어 이복거주의 일가 기록을 확인하기도 힘들었지만 월남을 해 정주한 분들의 계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 돌아가신 예관씨가 고심했던 기억이 역역하다.

23세 善姬양(필자에게는 한 학 열윗분)은 한국에서 백두산을 찾는분이 많은데 연변에 일가가 많으니 찾아주면 특히 일가끼리는 여행에 도움이 될것이라 했다.

(중국 吉林省 延吉市 日用雜品公司 廉義三 전화 002-86-433-51~7291)

大宗會 副會長인 暢台씨가 사업 차 중국 연변에 갔을때 우연히도 거기에 거주하는 일가분을 만나 이국에서 한핏줄의 일가를 상면하여 환대를 받으며 情誼를 나누고 귀국하면서 그들이 간직한 족보 8권을 빌려왔다. 검토해보니 지금 까지 우리문중에서 알고있는 족보 목록에는 없는 귀중한 자료임을 확인했다.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족보가 국토내에서 발간했던 것과는 달리 昭知 2年 음 12월 1일(서기 1927년 丁卯) 支那, 間島 吉林省, 延吉縣 頭道溝市에서 발행한것이다. 편찬진을 보면 門長 廉靈來와 門都監, 門有司, 書記들 비롯하여 發起人 8人과 교정, 掌議, 감독, 都監, 修整, 재무 掌財, 外務 등 譜所임원 만도 34명 그밖의 收單人이 7명 심지어 인쇄의 採字, 조각, 교정, 제본까지 일가분들이 책임맡고 있는 것이 이체롭다.

특히 이 족보에는 忠敬公과 配位의 묘지약도가 있는 데 京畿道 長湍郡 大江面 禹勤里 亢洞으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종보기록과 면단위이하가 상세하고 清江公 묘

지약도에도 咸南 北青郡 居山面 城川里로 기록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기록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端川郡 福貴面 豆彥台里에 6세에서 10세까지 9位의 묘록이 있고 또 通川郡 鶴二面 星峴里 白王山寺에 선조 3位의 묘록 略圖와 우리 문중에서 李朝 때 유일하게 仁祖 丁卯(1627년) 때에 文科及第한 晚山公友赫의 산소가 鐵原郡 西榆井里에 있다는 도면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甲子譜에 누락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현지확인에 참고 할것은 물론 족보간행이나 문헌연구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 사본이 대종회에 있으니 宗人 여러분은 물론 특히 청강공계열의 후손께서 필요할 것으로 믿는바 자료가 소요되시는 분은 대종회에 연락바랍니다.)

벽강(碧江)



연애에 빠진 市長

治者나 윗직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위엄과 경외의 마음만을 유지하여 경원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구시대의 인습이 아직도 팽배하는 요즘 이를 완강히 타파하여 몸소 사랑으로 개척하는 사람이 있다.

연애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하십시오라며 93년 3월 대전직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직원들에게 늘 지도하는 말의 시작이고 철학이다. 밑사람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가 제일 가깝고 또 진정으로 융화될수 있는 관계는 존경의 대상, 신뢰하는 상대, 믿어운 관계라는 표현의 관계보다는 “반해버린 상대” 이상의 가까운 관계는 없다고 본다.

연애의 아름다운 결정의 동원은 반해버리는 마음이다. 또 사랑의 마음을 중폭시키는 근원력이 여기에 있다.

永川都先山 묘역임야

獻 誠 錄

(단위 만원)

충청이북지역

在熙 500, 수원종친회 회장 珪澤
外 700, 東鎬 200, 昌勳 200, 매
현친목회 500, 鍾建 100, 在均
50, 伯均 50, 公勤 100, 基奉
300, 東煥 강릉 100, 澤根 100, 澤
龜 100, 灵澈 50, 泰根 200, 昌賢
100, 普鉉 100, 勳鉉 10, 國鉉
10, 益鉉 10, 永楠 10, 喬台 100,
東淵 100, 弘周 30, 東秀 100, 炳
斗 100, 弘喆 300, 基培 30, 宗桓
50(점수순)

경상, 전라도지역

琦燮 200, 德洙 200, 善泳 200,
且祚 100, 昌勳 100, 東鎬 100,
賢植 100, 安慶 100, 彰洙 100,
聖海 100, 正水 100, 漢鎬 70, 英
鎬 50, 秀東 50, 凤哲 50, 東勳
50, 東晉 50, 成大 50, 聖壽 30,
洪大 30, 丁權 30, 永豪 30, 龍喆
20, 宗泰 20, 龍星 20, 宇權 100,
學光 50, 錫昌 10, 오용 10, 동은

20, 圭三 10, 能洙 10, 寶城문중
50, 全州문중 100, 命壽 100, 根
植 100, 寧灌 100, 海德外 8 100,
秋夫外 3 100, 太植 30, 明金 30,
界山문중 20, 大奉 20, 奉鎬外 8
70, 海植外 13 140, 호중外 12
110, 八萬外 7 80, 종우外 14 52,
大昌문중 100, 德相 30, 善出 10,
教春 10, 학이 10, 성용 10, 우섭
5 基桐外 14人 113

※ 이상 94. 10. 15 현재로서 외
몇명란에 대해서는 명단 접수후
발표예정입니다. 합계는 입금 및
결산후 발표할 것임.

매현친목회 정기총회

94년 8월 3일에 있든 9회 정기총
회에서 그동안 회장직에 있던 준
태씨가 임기만료되고 후임으로 창
현(昌賢)씨가 선임되었다. 창현씨
는 23세손이며 함남 단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대양상호신용금고 사장직에 있다.

—寶城 紀蹟碑 제막—

清澈한 玉女峯이 솟아있고 첨산
을 지나 綿山에 이르러 洞天福地
를 이룬 호남, 보성 옛 凤德에 새
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德을
쌓고 善을 닦아 후손을 눈부시게
번창케한 이곳 入鄉先祖는 우리
中始祖 忠敬公의 7代孫인 淡湖公
의 謂는 浩이시다. 벼슬은 靖陵參

奉이였고 증손 17인이 모두 번창
하여 1500여호에 이르는 후손들
이 여기에서 전국각지로 분파되었
다. 후손들이 93년부터 힘모아
마을앞에 坡州廉氏寶城紀蹟碑를
문덕면 동산리 범화마을 입구에
세우고 94년 5월 1일에 200여명
의 宗人と 有志분들이 모여 除幕

式을 가졌다. 碑는 后孫인 永勳
公烈 南燮 秀東 등이 청하여 李家
源博士가 撰하고 后孫인 東珣이
글을 쓰고 金相筆이 전각하였으며
부근에는 副正公 參奉公이 享祀하
는 永思齋와 忠敬公을 主壁으로
菊坡公 梁山公 竹林公을 配享하는
淸溪影堂과 講堂이 있다.



白河에 흘린 눈물 (소설가 廉在萬)

이국땅 국적은 달라도 한 핏줄의 인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정이 흘렀다. (중국 연변에서)

우리들 소설가 일행은 통화(通化)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백하(白河)를 향해 달렸다. 열차는 대륙의 평원을 가르면서 바람처럼 질주한다. 야간열차라 칠후같은 어둠만이 사위를 덮고 있다.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강철바퀴의 흐름 소리에 낮은 진동이 배합되어 열차가 달리는 중임을 실감케 해주고 있다.

앞서 통화에 들려던 건 광개토 대왕비를 비롯한 고구려 사적과 한서린 압록강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 고구려 땅 일대는 옛부터 우리 땅이기에 옛고향에 온 듯한 정취를 풍긴다. 여기는 틀림없는 우리 땅이다. 감각적인 느낌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그러하다.

나지막한 돌무리의 밭두렁 모양새, 이랑을 일군 보습굽이의 형태, 주변의 정취며 잡초와 곡식 사이의 간격이 낮았다. 우리네 농부의 경작 솜싸랑 품성이 배어있고 팽이날 자국이며 땅 매무새가 동일하였다. 자연과의 친화방식도 그려하고 그 모든 땀방울의 향취도 다 우리의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이른 아침 희뿌연 여명 속에 열차는 백하(白河) 역에 닿았다.

열차에서 내린 우리는 이번에는 관광버스에 타고 다시 이도백하(二道白河)로 향해 달린다. 예정 표에 의하면 이도백하에서 아침밥을 먹게 돼 있었다.

한국음식 전문식당에서 한식으로 들게 해 주겠단다. 중국음식에 식상해 있던 우리는 오랫만에 대하게 될 한국음식에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한 핏줄의 만남

이윽고 이도백하 봉화(鳳花) 음식점에 닿자 넓은 온돌방으로 안내 되었다.

두부와 김치와 푸성귀국과 명명이수육이 나오고 명명이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쇠고기수육이 나왔다. 맛있게 먹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이 봉화식당의 운영을 맡은 경리(經理) 여자가 바쁘게 돌아친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대부분의 사업체를 국가의 공

상냥한 태도에다 깊고 세련된 언행으로 우리를 맞이해들이니 우리는 더없이 즐거운 마음이 되었다.

누군가 아줌마의 성씨가 뭐요, 하고 물으니 염씨라는 대답이었다. 그러자 이번 소설가들의 여행을 주관하는 상무이사가 바로 염씨라고 들 알려줬다.

그녀는 수많은 한국분들이 다녀갔어도 염씨는 없었다며 믿지 않으려 했다.

모두들 나를 찾았다. 그때 나는 마침 세수를 하고 돌아오는 참이었다.

저기 저분이 같은 염씨예요, 해서 얼굴을 들어 서로 바라보는 순간 서로 아무 말을 못하고 표정만 상기되었다. 그녀는 나보고 염씨시냐고 물었다.

나는 “네 파주염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후득 후득 눈물이 떨어졌다.

그동안 얼마나 종씨 만나기를 갈망했으면 이렇게까지 될까. 나 역시 눈물이 나서 어쩔수 없이 손으로 닦았다. 일행이 모두 함께 감격해 하는 표정이 되어 우리 종

이라고 한다. 그녀의 아버님이 그곳에 살고 계시고 염가로서 궁지를 느끼며 늘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한다. 혹시 몇대손인지 말씀을 하시더냐고 물으니 정확하진 않지만 21대손이라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네와 나는 오라비와 동생 사이일세, 하고 내가 말하니 오라버니 참 반가워요 하며 또 운다.

미련이 남는 석별

우리가 마지못해 헤어질 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생 가족과 나와를 서게 하고 사진을 찍어 주었다. 여기 실린 사진이 그 한장의 사진이다.

돌아가서도 연락할 방법을 물으니 그녀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급히 적어 주는데 너무 급하게 쓰니 볼펜이 긁혀지며 자국이 남는다. 어쨌든 잘 쓰는 글씨였다. 그녀 아버지는 늘 파주염가인 것을 자랑했고 자식들에게도 염씨집안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쳤단다.

이 숙명적 연결의 정이 어찌 눈물겹지 않을 수 있으랴.

나눌 수 있었다.

나는 옛날 부산 군대시절, 버스 안에서 본 학생의 명찰이 염희고 였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버스안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 잠깐이나마 종친의 정을 나누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이름 석자를 잊지 않고 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아쉬운 이별을 했던가.

이는 우리들 염가 아니고서는 느끼지 못할 감회일 것이다.

다른 성씨들도 하기야 그렇겠지만 염가 종친끼리의 혈연적 유대감은 더 절실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타고난 천생연분, 숙명적 연결, 부모 자식간의 혈연과 동일한 한줄기 유대가 태어남과 함께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내 마음대로는 못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깊고 영원한 존재원으로서의 생체적 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떻게 염가끼리 감히 냉랭할 수 있고, 어떻게 남남 같을 수 있으랴.

여기는 우리 땅이요 조상 대대로 일궈 온 우리 농경지요 우리 산하였다.

곧 한민족과는 신토불이적 혈연의 고장임을 체감으로 확신하게 한다. 이런 친숙성이 실증해 주는 듯, 또 수백년간 떠나 살다가 오늘에야 돌아온 듯, 편안함과 즐거움이 내면 가득히 차오르는 것이다.

오늘 철조망을 뚫고,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국경과 감시를 돌파하고, 삼엄한 장벽을 지나지나 달려오기로 수수십만!

백하역까지 가는 범열차는 우리를 신고 달렸다. 조상의 대륙, 우리의 대륙을 누비며 지칠줄 모르고 달린다.

공기관이 관장하는 체제이다. 봉화식당 운영을 맡게 될 여경리는 이를테면 경영을 위임받은 총지배인격이다. 전국 어디서든 적격자가 발탁돼 온다고 보면 될듯 싶다. 아마도 여러 후보자 중에서 엄선되는 듯하다. 인상 좋고 말 잘하고 직분을 감당할만한 능력자라야 선임될 것임은 자명할 것이다. 글씨도 잘 써야 하겠고 뭔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경리로 기용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봉화식당 여경리는 흰 얼굴에 귀태가 흐르고 품위 있고 발랄하며 손님에게 밝고 민첩하게 응대하였다. 번역이 힘드는 접객시중 일임에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친끼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다. 분위기가 한층 더 흐뭇해졌다.

우리 한민족은 이런 점이 좋아, 이래서 흐뭇해, 하고들 성원하였다.

버스가 다음 코스인 백두산 천지를 향해 떠나야 하므로 모두들 버스에 올라타고 나만 남았다.

빨리 해어지라고, 그만 울고 들 헤어지라고, 나보고 모두들 아우성이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일초라도 더 빨리 보려는 마음에들 안달인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염가로서 한 혈손된 정의를 나누었다. 출신지가 어디냐고 물으니 흑룡강성

그 동생은 손을 흔들고 나는 차장 밖을 내다보면서 손을 저었다.

차창유리가 뜨거운 입김에 흐려져 나는 유리를 거듭 닦아내면서 눈물을 닦아내었다. 우리 사이는 이내 멀어졌다. 염씨만이 느끼는 이 감각이 뿌듯함을 어떻게 표현하랴. 이런 감정을 굳이 감추거나 억제할 필요는 없었다.

이는 사생논쟁, 계급논쟁, 출신논쟁, 성분논쟁을 초월한, 인간 본래의 요원한 핏줄과 핏줄로서 맺어진 연결인 것이다.

어려운 한 시대를 넘어 자유첩총이 가능해진 시기에 만난 우리는 얼마든지 터놓고 울 수 있었고 동생과 오라버니로서 면면한 정을

종친회의 단결과 화합은 순수한 자연애의 현상이나 같은 이치라고 본다.

맑고 깨끗한 핏줄의 연원이 종친회의 결속으로 이어져 온다고도 본다.

이같은 종친회가 특정 파당을 조성하는 양상을 떠거나, 끼리끼리 즈네들만 논다 하고, 남을 따돌린다 하는 비난성토를 받거나 한다면, 혹 운영상의 반성의 여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종친회 조직을 외면하고, 화합을 저해하며, 참여를 기피하고, 취지 목적을 근본적으로 경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저버린 사람이다.

祝 永川都先山 淨化

(산소묘역 임야 매수)

水原宗親會

會長 珪澤
副會長 相顯
理事 東澤, 相天
監事 심택, 상옥
總務 憲陳

梅軒親睦會

會長 昌賢
副會長 灵澈
副會長 燉載
總務 東三
財務 贊模

법무사 廉昌勳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빌딩 202호
전화 753-3930, 755-1081

변호사 廉東鎬

서울 종로6가 289-3
동대문종합시장 A동 620호
전화 279-8440

한국가와이전열주식회사

대표 廉基奉
서울·용산구 서계동 130-2
전화 714-2373~5

핏줄이 뭐길래

더 해줄 수 없는 미련만 남기고 손 흔들어 비는 마음.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방사선 형의 사차원적 연결을 맺고 태어나서 평생동안 그 연결속에 얼크리져 살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나만 해도 굵직한 조직과의 연결들이 한둘이 아닌데 대충 들면, 중고 동문회, 문인협회, 펠클럽, 소설가협회, 은평구 청소년위원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등의 직업 및 권익관련 단체마다 충북도민회, 군대동기 군번 9939로 시작되는 친구들, 지금도 만나면 반가와 펄펄 뛰는 친구들과의 끈끈한 연결이 있다.

여기에 경기도민회 회원이기도 한데 이는 수원이 제2의 고향인 때문이다.

나는 그 어느 한 단체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것이 값어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중 하나로서 염가라는 씨족의 연원을 확인 시켜주는 파주염씨종친회라는 단체도 있다. 이런 연결을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소속 연결까지도 경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남을

화」의 상무직에 있기도 하다.

그것을 다 떠나고 등진다면 나는 무존재의 위치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인간이요 인간도 아닌 인간인 셈이다. 이는 자기를 부정하는 모순일 뿐 아니라, 이탈적 인간, 배반적 인간으로 변전하는 꼴이다.

가로, 세로, 위, 아래, 그렇듯 외부와 잇닿아진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복잡오묘한 사차원적 연고관계 중 한 가닥이 파주염씨종친회라는 연결끈이다.

종족적 동질성의 확인! 이는 너무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불가분의 요소다.

이것이 없는 동질 동족의 통합은 말만의 통합이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통일은 왜 갈망하는가. 인류평화는 왜 갈망하는가.

인간의 근원은 원래 맑고 순수한 것이다. 종친회는 그 자기의 씨종을 각기 튼튼히 새겨 가다듬자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하여 튼튼한 총괄적 조화를 범인류적으로 아룩하자는 노력의 일단이 종

이 아니요, 절대로 밤알은 안할래요 한다해서, 그래서 부득부득 고구마 겉으로 다가붙는다 해서, 밤알이 고구마가 될 수가 있을까.

밤알은 밤알이지 별도리 없다. 마찬가지 논리로서 종친회를 외면하는 자손은 이처럼 밤알이면서 밤알이 아닌 듯이 망상하는 행위나 같다고 할 수 있다.

밤알은 죽으나 사나 밤알이다. 염씨 씨종은 죽으나 사나 염씨 씨종이다.

별 도리 없다. 싫어도 할 수 없고 좋아도 할 수 없다. 파주염가는 같은조상에 의한 연결은 복잡한 외부와의 연결끈 중 한가닥일 뿐이다.

염씨종친회가 잘 되면 다른 사회적 연결끈의 조직도 잘 되어 밧줄처럼 튼튼한 연결로써 상호 이어져 번창함을 뜻한다. 이는 나아가 국민총화와 세계인류간의 화합과도 통한다 하겠다. 세계평화에 보다 힘차게 기여하되 뚜렷한 자기근거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데에 종친회의 의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친회 결속이 강화되

빼만 이땅의 흙이 된 줄 아쇼, 우리 할아버지 빼도 대대로 대대로 다아 이땅의 흙을 이루는 데 한몫 하셨소, 내가 그 자손이요, 하고

참 얼굴 들고 참 어깨 펴고 살만한 궁지와 자신감을 족보 한줄이 밝혀준다 이말이다. 내가 아스팔트 바닥을 굴러도, 논두렁을 밟거나 산등성이를 헤매어도, 아무 거

리낌도 없을 만큼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말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격증이며 명시적 입장서인가.

이러한 연결을 어떻게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가.

생업에 쫓기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참여를 제때에 못하는 거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마음의 자세만 흐트리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니고 살면 되는 것이다.

정신만 바로 가지면 바른 삶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백하에서 그 동생을 만나 흘린 눈물은 작으나마 그런 뜻있는 눈물임을 거듭 주장하고 싶다.

시(詩)

동녘 바다에서

길정(吉正)

커다란 불덩이가

활화산으로 변한 듯

솟아오르는

횃덩이

저 눈부심.

온 나라

진홍빛으로 물들고

극광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해도

석굴암 부처님은 엄존하시지 않는가.

이 조용하기만 하던 바다에

몰려들어온 왜구들

그 질곡의 세월

한 많은 백성들이 당한

슬픔과 오욕과 흘린 눈물과 피와

땀을

이 바다에 뿌리지 않았던가.

위해 일 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말짱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알아야 나라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이 될 터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의 종족적 결연을 또한 존중하고 가꿀 줄 알아야 나라고 인류고 부강하고 화목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신과의 사차원적 연결끈 하나 하나님을 다 존중하고 그 속에 소속됨을 명심하고 순응해야 깨끗하고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될 터이다.

그 연결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권익, 배움, 생업, 경력, 여행, 군복무, 취미생활과도 관련된 여러 모임체의 구성원이 나다. 나는 현재 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수석계 언론지, 「월간 수석문

친회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조직과의 연결끈과 같은 위상의 것이며 인류평화를 향한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인류라는 대단위 구성체는 각 개체적 집단의 단결과 화합으로써 존립의 의의를 갖는다. 이것 없이 침평화와 조화는 이루할 수 없다.

또한 씨성의 내력을 밝혀주는 중친적 결연은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된다.

일가의 재인식

오곡백곡이 푸짐하니 함지박 하 나가득 담겼을 때 가령 고구마, 감자, 토란, 등속이 뒤섞인 그 중에서, 우리 파주염가도 거기에 간 밤알이라고 비유할 적에, 나는 밤알

고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참으로 좋은 일이요 사회와 국가에 유익하면 유익했지 저해스러울 까닭이 없다고 본다.

“나”라는 인간의 원래의 씨족적 근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게르만족도 아니요 아리안족도 아니다. 틀림 없는 한민족이라는 뜻이다. 내가 파주염씨 대종보 한구통이에 한줄 올라 있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은 이런저러한 풋줄의 한민족임을, 이나라 이강토의 토종이요 이강산의 임자임을, 참으로 뜻밖한 얼굴로 이땅을 디디고 살만한 자격과 내력을 갖춘 사람임을,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증명해주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빼도 이나라 흙을 이루는데 보탰소, 당신들 조상

보아라
조물주의 힘겨운 몸부림으로
세공보석의 화신이 된 암벽 행렬
비취빛 고운 물결 위에
온 누리를 지키려
튼튼히 쌓아 올린 海城을.

깊은 바다 속
뻘 속까지 속속들이 흘어져 파묻힌
원한에 사무친 혼백의 넋들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으려니

이제 다시
동해에 와서
어둠보다 더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리.

꿈도 절망도 다 털어 버리고
무심하게 철썩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시 웃깃을 여미고
많은 선령들께 읍(泣)한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祝 永川都先山 淨化

산소묘역 임야 매수

三和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廉 琦 變

부산·해운대구 반여1동 1228-2
전화 523-2001~4

東邦海運株式會社

代表理事 廉 德 洙

부산·중구 중앙동 4가 78-7
전화 463-8484~7

대전직할시장

廉 弘 菩

대전시 중구 대흥2동 499-1
전화 250-2001~3

동방아크로주식회사

대표 廉 泰 根

서울·관악구 남현동 1055-2
동방빌딩
전화 523-3501

寶成화학

사장 廉 善 泳

경남 김해군 장유면 유하리 785
전화 0525)31-3324
051)469-6689

忠敬公의 軍事活動(下)

恭啓王5年の 反元政策

공민왕의 反元政策 추진은 공민왕 3년을 전후로 하여 원의 쇠퇴로 말미암은 그 존재의미의 상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南征軍으로 파견되었던 장수들이 돌아와 원의 사정을 보고하면서 反元活動을 단행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더군다나 동북면에서 친원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던 永興干戶 李子春의 래조는 공민왕에게는 크나큰 정치적 군사적 힘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하여 동왕 5년 5월에 친원세력인 기철 권겸 노척등을 치밀한 계획아래 제거하는 날로부터 征東行省이 문소를 혁파하는 동시에 동북면 서북면의 구토회복을 결행하였다. 評理인당을 서북면 병마사로 사윤, 신순, 유흥, 최영, 최부개를 副使로 하여 압록강 이남의 8站을 공략케 하고 密直副使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공천보 김원봉을 부사로 하여 永興등지를 수복케 하였다. 인당은 군사를 이끌고 3站

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공민왕 5년의 내정개혁안은 모두 17개항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국방력의 재정비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5개항으로 軍卒의 충당 역제의 재정비 군량의 확보 차원에서 개혁조처가 이루워지고 있다.

忠敬公의 軍事활동

염제신은 공민와의 반원정책의 실질적 행동인 서북면의 舊土회복 노력에 부응하여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의 군사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柳濯, 廉悌臣 등 40여인의 군사 2천여인을 이끌고 원에 가려 하니 왕이 邀賓館에 거동하여 친히 점검하고 보냄에 미쳐 행군하여 압록강에 이르니 廉允忠이 군중에게 모의하여 말하기를 “친척을 떠나 墳墓를 등지고 사지에 나아 왔으니 어느날 돌아 가겠는가? 精騎 50으로써 京城에 馳還하여

④ 5월에 웨적이 전라도 會尾·沃溝 등을 침범하고, 또 楊廣道·平澤·牙州·新平등의 고을을 침범하였는데 용성 등 10여 고을을 불태우니 京城에 계엄을 내리고…… 동네의 장정들을 뽑아서 군인을 만들고 또 百官들로 하여금 전쟁을 돋게 하였다. 諫官이 공민왕에게 나아가 절하고 하직하니 參政 鄭世雲이 아뢰기를 “간관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옛날에 듣지 못하던 일이오니 국체가 무슨 꼴이 됩니까?”하니 왕이 특별히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國字博士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공자의 廟庭을 모시고 있는데 學官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하니 시중 염제신과 李岱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비록 공자를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공자가 어디로 도망하라!”하였다. (《고려사절요》권 27 공민왕 9년)

①은 염제신과 柳濯 등은 2천 여 명의 군대가 원의 요청으로 南征을 가는 상황에서 廉允忠 등 일단의 武將이 친위세력에 대한 반감

고려의 국토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힘인 군사력 육성책

것이다. 여기에 諫官과 學官 등이 전쟁에 나가려 하지 않자 염제신은 이들의 태도를 힐난하며 “공자가 어디로 도망하랴?”하고 극명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물론 전시 동원령에 참여치 않으려는 이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염제신이 공자에 빗대어 이들을 강경하게 비판한 점은 당시 웨구 침략에 따른 각오가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염제신의 국방안은 공민왕 5년 11월에 올려지는데 이 시기는 공민왕의 반원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의 고려 군사력의 재정비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국방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변경을 방수하는 법은 적당한 때에 교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은 한여름에 북쪽으로 와서 겨울이 되도록 머물러 의갈이 없으니 무엇으로 추위를 막을 것이

을 공파하였고 유인우는 쌍성을 빼앗아 和州 登州 定州 등 9개의 鎮을 수복하였다. 이리하여 高宗 45년 (1258) 이래 동북 서북면 지방을 지배하던 원을 내몰고 고려의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和州 定州 咸州는 물론 北青지방까지 회복할 수 있었고 여진인의 본거지인 압록강 남쪽 강변까지의 공략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다.

공민왕은 이러한 영토수복 뿐만 아니라 동년 6월 충렬왕의 서자 석기일당인 손수경 일파를 제거하고 諸軍의 만도 백호태 의 몰수 그리고 至正호의 사용금지 7월의 官制改革 등 일련의 反元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원에 대한 고려의 자주적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원과의 예속관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구조, 즉 고려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대해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일련의 반원정책을 취한 공민왕의 노력은 5년 6월을 해에 교서를 발표하여 친원세력인 기철일타의 죄상과 석기의 난에 대한 그 처단의 명분을 밝히고 고려왕조의 중흥을 다시금 꾀하고자 한 대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전왕대에 시행하고자 하였던 개혁정치와 원년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던 조치를 계속 추진하여 그간의 원의 간섭과 친원세력의 전횡에서 비롯된 정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근본

처음 발병할 것을 꾀한 자를 殉하고자 한다.” 하고 염제신에게 고하니 제신이 말하기를 “좋은 꾀가 아니다. 우리 임금은 하늘이다. 하늘을 가히 도피할 수 있겠는가? 忠臣과 義士로서 어찌 反側하는 말이 있으리오!”하고 사잇길로 달려가 이미 도성에 이르렀다. (《고려사절요》권 26 공민왕 3년 추 7월)

② 奇轍을 주살하고 公을 서북면 도원수로 임명하였다. 인당이 副使인 姜仲卿을 擙殺하여 나라가 그의 奔動에 두려워 하였는데 곧 바로 토벌을 명하지 않고 공에게 계책으로써 誅殺케 하니 군이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 (원의) 朝廷에서 사신을 보내어 국경에 이르러 난이 일어난 연유를 물으나 “기씨가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여 먼저 친 뒤에 갖추어 아뢰고자 하였다.”고 진달하니 元帝가 노여움을 풀어 우리 나라를 용서 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이 이에 대응한 힘이었다. (《廉悌臣神道碑銘》)

③ 그해 겨울에 서북면 도원수로 임명되어 공민왕이 節斧를 주면서 또한 말하기 “公이 간 뒤에는 내가 북방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하니 공이 대답하기 “신 또한 감히 米·鹽의 일로써 임금을 거스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는데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廉相은 나의 만리장성이이다. 군정을 다스리되芻糧을 먼저하고 성보를 그 다음으로 하고 器械를 그 다음으로 하라.”하였다. (동상)

을 보여주는 것으로 염제신은 공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남정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남정은 공민왕 3년 6월 정승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蔡河中이 원의 국내사정을 파악하고 원의 정승인 脫脫에게 고려의 군사를 출병하여 경벌에 협조케 하겠다고 하여 李壽山과 더불어 국내에 들어와 공민왕에게 脱脫의 파병 요청인 것처럼 속이고 염제신, 유탁을 거론하여 원에 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민왕은 염제신을 曲城府院君에 봉하여 유탁 등과 함께 남정에 참여케 하였다. 그러나 염제신은 고려 국내의 군사지휘체제의 공백으로 공민왕에 의해서 곧 고려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②는 공민왕 5년 5월에 친원세력인 奇轍세력을 제거하면서 영토수복을 위해 동북면, 서북면의 공격에 따른 원의 불만을 염제신이 처리한 내용이다.

인당 등의 婆娑府 등 3站을 공파하였을 때 원에서는 아직 기철이 이미 피살되고 또 고려군의 8참 공략이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고 원의 直省舍人이 기철에게 주는 宣命과 印章을 가지고 오자 서북면 병마사 辛珣이 元使를 도중에 만나 선명과 인장을 빼았고 원사를 가두고 그의 徒子 3인을 죽여버린 일이 발생하였는데, 도망한 원사가 원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에서느 고려의 節日使 金龜年을 遼陽에 가두

죽이게 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두었다가 인당이 군사를 이끌고 암록강의 婆娑府 등 3참을 격파한 다음 염제신으로 하여금 인당을 제거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③서북면 병마사 인당을 죽인 뒤 원의 내침에 대비하고자 염제신을 서북면 도원수에 임명하고 刑部尙書 柳淵, 判司宰寺事 金之順, 上將軍 金元命을 부원수로 하여 표의와 金帶를 내리고 서북면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였다. 여기서 염제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공민왕은 “경이 간 뒤에는 내가 북방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점과 “염제신은 나의 만리장성이니”라고 하여 염제신을 높이 평가한 대목은 염제신의 원에서의 정치적 역량력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염제신을 장수로써 그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라는 점과 원과 밀접한 염제신을 북방의 최전선에 내세웠던 공민왕의 의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군정을 다스림에 있어서芻糧을 먼저하고 城保와 器械를 그 다음으로 하라는 대목은 염제신의 국방안 제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④는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수도인 개성에 계엄을 내리고 유탁을 京畿 兵馬都統使로, 李春府를 東江都兵馬使, 李子春을 西江兵馬使로 임명하여 백관이하 일반민에 대하여 전시 동원령을 내린

며 설사 몰아서 失石間(전쟁)에 넣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컨대 반년으로써 1期를 삼아 교대하게 하소서, (《고려사》지35 병1 오군 공민왕 5년 11월)

② 또 군중에서 비록 親喪을 당하는데라도 隊列(行伍)을 면할 수 없으니 그 어찌 사람의 자식된 정리로서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무릇 상을 당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만약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게 하소서. (동상)

③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하고 병을 농사에 감춘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군사들로 하여금 일이 있으면 무기를 잡고 일이 없을 때에는 屯田하게 하면 군량을 운반하는 일은 생략되고 軍食이 넉넉하여 질 것입니다. 군사의 강성함은 군량의 저축에 있는데 지금 군사를 일으킨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수송하는 도로는 험하니 만약 그 精強한 자를 뽑아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군졸은 빠져서 安州 등처에 취식케 하되 變을 보아 동원하면 곧 군량미를 운송하는 노고를 덜고 養兵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고려사》236 병2 屯田府 兵糧 공민왕 5년 11월)
에서 볼때 염제신의 국방안은 3조 항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란만장의 생애

—격동의 세월을 헤치고

그 첫째는 邊防之戍의 문제로 반년을 일기로 교대하여 복무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원래 방수에서 정규적 수자리의 교대는 1년이었다. 그런데 이를 6개월을 1기로 하여 교대하자는 것이었다. 방수 기간에는 의복이나 무기를 마련해야 하고 또 부임 도중의 식량도 각자의 책임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방책은 군인들의 가장 무거운 방수의 임무를 덜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그만큼 군사의 숫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공민왕 5년의 반원정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만이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군사가 親喪을 당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고, 대신 할 사람이 없으면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래 諸領府 군인에게도 그

정책이 단행된 공민왕 5년에 가서는 친상을 당한 군졸이 그나마 50일의 급가조차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염제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군량의 확대책으로, 둔전의 경영을 통해서만 군량수송의 수고로움을 덜고 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예한 군병만 요충지에 남겨두고 그 나머지 병사는 安州(평남 안주) 등지로 옮겨 후방에 주둔케 하자는 것이다. 둔전은 邊境, 鎮城에 주둔하는 군대가 군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토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둔전이 권세가에 의해서 탈점되거나 묵은 토지로 되어 버렸는데, 원이 강점하고 있던 동북면, 서북면을 되찾으면서 그 동안 묵었던 屯田處를 경영하자는 것이었다.

제학보 경영하려는 것이었고, 방수의 문제 또한 방수의 교대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일반민이었던 군병의 피해가 그만큼 적어 |고 한편으로 병사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염제신의 국방안은 실제적으로는 고려전기 아래의 군사체제 복구를 위한 특별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민왕 5년의 국방정책이 그대로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 서오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제신이 이러한 국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공민왕 5년의 국방정책에서 얻어진 군제정비과정은 홍건적의 1·2차 침입을 물리친 이후 집중적 노력의 결과로 그 골격이 고려말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속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원에서 생활하면서 관직생활을 하고, 귀국하여서도 고려 국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려의 존속을 위해 고려 정부의 외교적 임무를 謝恩使, 聖節使를 역임하는 가운데 도맡아 처리하면서 원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공민왕의 반원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원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줄이려 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의 원 간섭 배제라는 일관된 정책 속에서 그가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의미있는 모습이며, 이 시기 원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친원세력과는 또 다른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민왕의 반원정책은 그의側近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는데

공민왕 5년의 반원정책과 관련 한 실체적인 힘이 되어야 할 국방 개혁은 사실상 고려 군제상에 있어서 고려 초기 아래의 군사체제를 그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반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인의 확보, 이에 따른 둔전의 확대, 驛制의 재정비를 해결하고자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염제신의 국방안은 공민왕 5년의 국방정책의 재정비라는 측면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제신의 국방안 역시 실체적으로 고려 전기 아래의 군사체제의 복구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염제신의 군사활동과 그의 국방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고려 정부나 일반민에게는 일정한 역할을 하게끔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부모상에는 1백일의 福暇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원종 15년, 원의 일본정벌에 이어서 충렬왕대에 들어 원에 의한 군사상의 압박이 강화되자 고려는 군사들에게 휴식기간을 대폭 단축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종래의 1백일의 급가에서 그 반인 50일로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해에는 원의 제2차 일본정벌이 있었으므로 전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반원

격동기의 슬기

이상 염제신의 국방안은 공민왕 반원정책의 추진과 그 성공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을 재정비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민왕 5년의 국방정책은 군량의 확보, 군사의 문제에 그 결함이 있었던 반면에 염제신의 이러한 국방안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둔전의 문제 역시 동·서북면의 회수된 토지를 屯田處로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염제신의 생애와 관력을 통하여 그의 역사적 위상,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관련하여 염제신의 군사활동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염제신은 원의 외압에 의해 재편성된 고려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여기에 부응하려는 가문의 환경

염제신은 여기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민왕 5년 5월의 친원세력인 奇轍勢力を 제거한 이후 인당 등을 제거하면서 그 수습과정에서 공민왕을 도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염제신의 군사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국방개혁안이 동시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염제신의 비중은 고려의 대원관계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고 주목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洪榮義 세종기념회 연구원)



—水絃祠의 祭享—

음력 9월 中丁日인 지난 10월
18일에 宗人과 有志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水絃祠의 금년도享祀를 모셨다.

화창했던 이날 有司분들의 빈틈 없는 준비와 유림祭官의 경건한 예로 이날 祭享를 마치면서 보령댐 건설로 곳 수물이 되는 사우건

물이라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이 될 제사였으니 모두의 감회가 깊었으리라.

옛글에 青山不墨萬古屏 流水無絃千年琴이라는 글귀가 있다. 청산이 둘러쌓여 병풍을 이루고 물이 흘러 현이 없어도 옥구르는 소리가 끝이지 않고 흐르다 고인 소에는 복사꽃 그림자 빛힌다는 절경에서 유래된 水絃洞 桃花潭의 지명이 있는 고장이다. 이곳에는 宗人과 지방學者들이 忠敬公의 유상을 모시고 菊坡公 松隱公 耕隱公을 모신 祠宇를 癸申년 봄에 설향하여 水絃祠라 했다. 들리는 바새로 옮겨지울 사우의 위치선정 등 제문제로 지역宗人們간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조상분들의 빛나는 전통의 유적을 값지게 길이 보전하여 일가사이의 화목을 다짐하는 진실만 전해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후손들의 슬기있는 태협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영광의 금메달 廉鍾吉—

히로시마에서 개최한 94년 아시안게임 복싱종목 벤턴급에서 금메달의 영예를 얻어 한국건아의 자랑이 된 염종길은 23세의 나이로 서울시청 소속으로 있으며 전남 목포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일가인 父廉玉燮(55세)과 어머니 서희순(48세) 사이의 세형제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문태중고를 거쳐 서울시립대학에 재학중이며 168cm의 키에 몸무게 54kg의 다부진 체격으로 국제대회에는 첫 출전한 신예이지만 국내에서는 93년부터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이미 알려진 기대주로서 성품이 착실하고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로 앞으로 더욱 분투하여 빛나는 활약으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한다.
(본가 목포시 대양동 167번지 2동 1반)



鐘에 신들린 童顏의 廉教授

종(鐘)은 石器時代의 옛날부터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人類文化에 영향된 바 지대하다. 종은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고하고 특별한 사태(지진, 홍수, 화재, 전쟁 등)를 경고할 때나 음악과 종교의식 등에 쓰이는 打音器의 일종이다. 특히 불교寺院에서 쓰이는 종을 梵鍾이라 하는데 法鼓, 雲板, 木魚와 함께 불교 四物중의 하나이다. 四物이 소리의 수단으로 뭇 종생을 제도함에 있어 범고인 북은 네발가진 중생을, 운판은 하늘에 날으는 중생을, 목어는 물속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함께 범종은 지옥에 빠져 신음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불교에서의 범종은 그 독특한 소리를 통해 뭇 종생들의 108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의 눈을 뜨게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작용도 한다.

특히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東洋三國에서의 종은 文化面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정신적 물질적면에서의 종의 발전과정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저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밀레종은 博物館 관계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독일의 “켄넬”박사는 경주 박물관에 있는 이종을 보고 그 예술성 만으로도 세계 제1의 종이라

하며 독일 같으면 이종 하나만으로도 큰 박물관 하나를 건립하였을 것이라며 격찬했다. 또 이종에는 지금의 우리산업에 공헌한 일화가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회사에서 우리 현대자동차회사에 자동차 엔진 제작기술을 제휴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회사의 공장장인 아라이(蔬井齊重)씨가 현지 실태 조사차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장시설 등 여려모를 분석하고는 한국은 아직 자동차엔진을 제작할 수 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기술제휴 문제가 결렬되어 그가 귀국하기 직전 경주박물관을 관광하게 되었을 때 이종을 보고는 이종은 사람의 손과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감탄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기술이 한국에서는 1200여년전인 신라때에 일 반화된 기술수준에 있었고 또 그때 신라, 백제를 통해 일본에서는 무상으로 이기술을 전수받아 오늘의 일본산업발전으로 이어 졌으니 나는 그 은혜의 일부만이라도 보답해야 되며 또 지금 내가 아는 기술은 저 종을 만드는 기술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며 뜻을 바꾸어 그가 아는 엔진 제조기술을 견학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국보

36호인 五台山 上院寺종은 서기 725년에 완성한 무게 1290kg로의 일품이고 34년의 긴 주조기간을 통해 771년에 완성한 국보 29호의 聖德大王 神鐘(일명 에밀레종 혹은 봉덕사종)은 무게 약 22톤의 거중으로서 그 형태와 문양 소리 등으로 세계최고의 걸작예술품으로 정평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音箇이나, 그 오묘한 소리는 현대과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하니 놀랍고 세계적 자랑이다.

이와같이 우수한 우리선조분들의 기술을 익혀 재현하려는 염교수의 집념은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점차 그 결실을 맺어갔다.

필자는 얼마전에 서울의 중심 종로 네거리 보신각 종루앞에서 보신각종을 소개한 비석에서 이종은 당시 서울특별시 시장인 廉普鉉이 주관하고 廉永夏박사가 설계와 기술지도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한참 종루를 들며 친근감을 가지고 관찰한적이 있다. 또 무게 24톤에 이르는 대전의 엑스포대종을 제작함에 있어 염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와 주조를 지도했다는 신문기사도 보았고 최근에는 문중 어른들과 경주석굴암 종루에서 염교수가 설계한 통일대종을 보고 일행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후 나는 우리 염박사가 설계와 기술지도를 해서 주조한 종이 이외에도 범어사, 화엄사, 광주 관음사, 직지사, 천축사, 해인사의 대종과 홍제암의종, 낙산사, 창원시민의 종, 실상사종의 복원을 비롯 미국 아리조나종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우리의 범종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또 현대 과학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로서 그 공법의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서 범종에 관한한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 학자중 한사람이 우리 염교수이다.

廉永夏교수는 忠敬公 23대손으로 清江公후 端川에 始居한 持平公 休士恒으로 이어 洪原과 利原으로 이주하여 1919년에 기독교 장로였던 父 仁植과 母 密陽朴氏 사이에서 5남4녀중에 次男으로 출생하였다. 함흥의 永生高普를 출입하고 日本의 山口高等學校를 졸업하고 日本의 東北帝大 工學部를

거쳐 日本의 東北帝大 工學部를 졸업한후 해방후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6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工學博士의 학위를 얻었다. 45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단에 선 이후 84년 정년퇴임 할때까지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종에 관한 전문서적 3권 기계분야 17권, 역서 2권, 공동 저서 8권



등을 저서하였고 이외 국내 80종, 국외 9종의 문헌을 남겼으며 78회의 논문보고, 24회의 합동논문 보고를 하였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박사, 석사만도 60여명에 이른다. 이상은 교수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수치이고 보면 업적은 과히 기록적이다.

이와같은 업적으로 60년 1월 대통령의 녹조소성훈장을 받은것을 위시하여 74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외에 여러분야에서 표창, 감사패와 공로패 등을 받은 것을 합치며 그 수를 혜아릴수 없다.

교수는 대한기계학회의 회장직을 위시해서 국내 철물기술협회



—松坡宗親會—

동정공의 5대손인 嘉善大夫 謹望立(일명 夢傑) 선조의 후손이 주도된 서울 松坡區 일원(옛 돌마리) 거주 종인모임에서는 그동안의 활동면모를 일신하고 보다 내실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94년 4월 4일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으로 있는 東秀씨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坡州廉氏 松坡宗親會의 헌관식을 가졌다.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는 이會 회장命秀씨는 경기 광주군 서부면 草二里에 모셔진 선조분들의 묘역을 정화하고 보다 알차고 화목한 모임되게 재 출발한다는 의욕이 대단했고 회원여러분도 열의있고 서로 화목하여 앞으로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었다.

용접기술협회와 범종연구회의 조직을 역임했고 일본, 미국, 영국 등 기계, 금속, 철강 등 학회에 정회원으로 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명예교수직에 있으면서 후학지도에 열중하여 노익장의 흥안이시다. 슬하에 2男 4女를 두었고 兄 東夏氏가 서울大, 弟 成夏氏가 한양大, 여동생 楚愛氏가 숙명大 교수로 드문 교육가의 집안이라 하겠다.
(임내초부)

편집후기

이번에도 在熙會長님의 재정지원으로 종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일찍 7호를 낸다는 것이 또 1년만이다. 무더운 여름 영천산소일로 분주한 틈에 소식들을 모으고 생각들을 서툰 글귀로 엮으면서 원고주신 在萬 홍영의씨께 감사하며 또 많은 자료를 주시며 격려해주신 東右, 秀東, 基瑢氏께 고마움 다할 수 없으며 원고주셨는데 지면관계로 이번에 못 실은 東右, 敏燮 두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바 없다.

(碧江)

祝 영천도선산 정화

廉韓醫院

會長廉鴻武
院長廉賢植

부산시 중구 동광동 4가 21
전화 469-5543

廉韓醫院

원장廉東煥
의사염주원
강릉시 교2동 146-4
전화 2-5256, 43-5676

保寧韓醫院

院長廉圭顯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97-7
전화 362-7407, 362-1013

龍河韓醫院

會長廉寧灌
院長廉龍河
충주시 도천동 116-2
전화 43-7598